

문헌학적 기초 연구의 필요성과 현황 · 전망

이 상 택*

1. 서론(문제의 제기)

대망의 21세기를 앞두고, 국학이 지향할 목표와 방향을 첫째, 민족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 둘째, 국학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세계로 진출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라는 두 명제로 집약시켜 볼 수 있다. 이 두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디서부터 어떻게 착수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과제, 즉 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 작업에 관해서 먼저 생각해 보자. 통일 시대의 문학을 이론적으로 천착하자면, 예컨대 문학사를 기술하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론의 잣대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남·북한의 이론적 잣대는 적어도 현재의 상황으로는 통치 이념의 相剋樣相만큼이나 엄청나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렇다고 兩者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조화를 모색해 볼 수 있는 뚜렷한 妙方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어느 한쪽의 잣대를 다른 한쪽에 강요하다 보면 통일이 아니라 분열의 심화만 초래하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白樂晴 교수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경청할 만하다.

* 본과 교수

통일 한반도가 자본주의 세계 체제로부터 이탈하지는 않더라도 한국 자본주의의 현상태를 어떤 식으로든 타과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은 '지속적인 과정으로서의 통일'에 구체적인 내용을 부여한다. 예컨대, 남쪽에서는: 세계시장의 논리를 현실로서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그 논리를 넘어선 대안적 세계를 모색하고 남한의 자본주의를 개량해 가면서 통일 과업에서 좀더 본격적인 변혁의 계기를 찾으려는 복합적인 노력이 진행 중인데, 바로 이러한 움직임이 '분단 체제 극복으로서의 통일'이라는 지속적인 노력이다. 북의 경우는 훨씬 짐작하기 어렵지만, 세계 시장을 향한 점진적 '개방'과 이에 따른 '개혁'이 단순한 체제 수호의 방편으로 그칠지, 체제 수호에 실패하면서 그나마 남한 주도의 통일밖에 대안이 없게 될지, 아니면 북의 민중 또한 '분단 체제 극복으로서의 통일' 움직임에 합류할 길이 열릴는지 두고 볼 일이다.¹⁾

요컨대, 통일의 방식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따라서 문학 연구의 이론적 잣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문학 연구의 기본 방향을 문학 이론의 개발 쪽으로 잡기는 어려운 일일 뿐 아니라, 설사 이론적 천착으로서 당장은 일정한 성과를 거둔다 할지라도 그 성과는 限時的 성격을 띤 공산이 크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필자는 본격적인 문학 이론의 개발에 관심을 두기에 앞서 이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치중해야 할 사업으로서 문학 또는 문화 유산의 자료 정비와 관계되는 기초 작업, 예컨대 도서의 종합 목록 작성이나 善本校勘, 도서 해제, 작품 주석과 번역·현대역 등 일련의 文獻的 研究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당장 필요하고 의의 있는 일이 아닐까 한다.

물론 통일 시대의 문학 논의가 限時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논의 자체를 중단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통일 시대를 대비한 문학적 논의가 적지 않게, 또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시각에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白樂晴교수가 지속적으로 펼쳐 오고 있는 민족문화론이나 1990년에 발족한 민족문화사연구원의 활기찬 활동을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일단의 전문적 이론가가 존재한다. 이들의 지속되는 논의에 의하여 통일을 대비한 이론적 잣대가 변증적으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모든 국학자가 선불리 이론 정립에 뛰어들기보다는 지금까지는 학문적 성과로 인정도 되지

1) 백낙청, 「통일 시대 한국문학의 전망-I」(해방 50주년 기념 문학 심포지엄 <한국현대문학 50년> 발표 요지, 1995.9.22), p.4.

않고 방치 당해 온 문헌학적 기초 연구에 새로운 조명을 해보는 것이 생산적일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진의이다.

다음으로, 국문학의 세계화 방안에 관해서 생각해 보자, 국문학의 세계화 작업이라면 ① 문학작품이나 국문학 이론을 외국 언어로 번역하여 해외에 보급하는 일, ② 외국 대학의 한국학 전공자를 위한 국문학 강의 등이 그 주종을 이룬다 하겠다. 그 동안 국력의 신장과 관계가 있는 일이겠지만, 최근에 위의 두 가지 사업에 관한 해외 각국의 요구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해외 한국학과(주로 英語圈)에서 텍스트로 사용할 국문학 작품이나 국문학사, 국문학개론 같은 이론서적의 英譯本 간행은 매우 시급한 일이고, 이에 대비한 작업을 구체적으로 몇몇 대학이나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착수해야 할 작업이 텍스트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일이고, 고전 작품의 경우는 작품 주석과 표기법의 현대화 작업이다. 말하자면 작품에 관한 문헌학적 기초 연구가 최우선적인 작업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실한 학풍 수립과 관계되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그 동안 국문학은 각 분야에 걸쳐 질적인 수준에서나 양적인 측면에서나 참으로 눈부신 연구 성과를 창출하여 쌓아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개중에는 연구 자료 즉 텍스트에 관한 세심한 문헌학적 기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定本이나 善本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열악한 텍스트를 마구잡이로 활용하면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이는 물론 학자들에게 제량 위주의 연구 업적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세태 탓도 있었지만, 연구자 자신이 이러한 세태에 밀

2)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는 미국 스토니브룩 소재 뉴욕 주립대학과 협약을 맺고 1992년부터 <韓國學叢書 11권> (한국 언어, 문학, 역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술사, 유교, 불교, 자연과학 등 11개 분야의 개론서)을 집필하고 뉴욕 주립대학에서 英文으로 번역하여 그 곳 출판사에서 간행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에서 해외 한국 문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국제한국문학회는 영문판 한국문학 문고 발간 계획을 세워 서울대 권영민 교수의 주관으로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작업 내용은 한국 구비문학, 고전 시가문학, 고전소설, 현대시, 현대소설 등 각 장르별 작품집을 전질 6권으로 간행할 예정이다.

려 제량 위주의 연구 실적 산출에만 급급하여 맹목적으로 앞만 보고 줄달음쳤던 그 졸속주의적인 연구 자세에 보다 심각한 책임과 문제가 있다 하겠다.

이제 21세기를 맞는 이 시점에서는 학계에서도 좀더 차분하고 냉정한 이성과 연구 자세를 되찾는 일이 급선무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킬 화려하고 눈부신 연구 과제에 집착하고 기발한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내어놓는 일, 또는 제량 위주의 업적 산출에 급급하여 일년에 십여 편이 넘는 논문과 저술을 엮어 내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비록 연구자가 부여하는 노력과 시간과 학문적 정열에 걸맞은 보상을 당장 받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연구 자료로 활용될 텍스트에 관한 기초적 서지 사항을 세심하게 검증하는 일은 물론이고, 난삽한 漢文이나 古語로 표기된 原典의 번역 사업, 현대화 사업 등과 같은, 이른바 爲人之學 또는 利他之學에 묵묵히 종사하고 정진하는 인내와 각고의 자세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비단 국문학뿐만 아니라 국학 전문분야에서 통일 시대 및 세계화 시대에 추구해야 할 가장 긴요한 연구 방향과 과제로서 <국학의 문헌학적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문헌학적 연구가 성실히 수행되어야 국학의 정체성(正體性) 확인을 위한 단단한 기초 토대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천착 발현된 국학의 정체성이야말로 통일 시대 문헌학을 서술하고 세계화를 올바르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요컨대, 다가오는 21세기 세계화 시대에는, 물론 국학 각 분야에 걸쳐 참여한 문제의식으로 심도 있는 이론 체계를 산출하는 본격적인 이론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본격적 연구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의 문헌학적 기초 연구에도 집중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연구 자세 및 의식의 대전환이 요청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국학의 문헌학적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뒤따른다. 필자는 다음 몇 가지를 제시코자 한다.

2. 국학 문헌자료에 관한 綜合目錄 작성 · 문헌교감

1) 종합목록 작성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典籍에 관하여 그 소장처와 서지적 문헌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매우 긴요하다. 현존하는 우리 도서목록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義天이 고려 선종 7년(1090)에 편찬한 『新編諸宗教藏總錄』으로 알려져 있고,³⁾ 그 후 『朝鮮古書目錄』(朝鮮雜誌社 朝鮮古書刊行會, 1911), 『古鮮冊譜』 3책(일본 東洋文庫, 1934·1956·1957) 등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적지 않은 도서목록집이 간행된 바 있다. 참고로 沈慶昊 교수가 작성한 도서목록집 일람표를 소개해 보면 별표 <1>⁴⁾과 같다.

별표 <1>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까지 간행된 대부분의 도서목록집이 소장자 중심이거나 분야별로 작성된 것이어서 일정한 체계에 따른 종합적인 도서총목록의 작성이 시급하다.

2) 문헌의 교감

문헌의 교열은 주로 동일 도서의 異本 중에서 定本 또는 善本을 가려내고 확정짓는 작업을 말한다. 동일 종의 텍스트 중에는 刊本도 있고 寫本도 있으며, 동일 종의 刊本이라도 간행 시기의 선후가 다를 수 있다. 漢文本 古典國譯 및 간행 사업의 중추기관인 民族文化推進會는 현재 20개년 계획으로 『韓國文集叢刊』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집의 善本 선정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7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3) 沈慶昊, 「韓國典籍綜合目錄 작성 및 韓國學 典籍資料 集成의 필요성」(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제6회 학술토론회 발표 요지, <한국학의 문헌학적 연구, 그 현황과 과제>, 1994.11.11.

4) 上掲論文에서 轉載함.

- ① 刊本과 寫本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刊本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여러 차례 간행된 異本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初刊本을 선정하고 수록 내용이 增補된 경우에는 增補本을 선정한다.
- ③ 續集과 別集 등은 모두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문집에 포함되어 간행된 단행본 또는 단행본적 성격의 日記, 紀行, 雜錄 등도 모두 포함하여 선정한다.
- ⑤ 대상 문집 안에 著者와 유관한 인물의 문집이 부록 또는 附集의 형태로 함간된 경우에는 이를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⑥ 附錄은 저자의 연구에 필수적인 기본 자료에 한하여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⑦ 영인의 효과를 감안하여 상태가 양호한 본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단 文集이 아니더라도 저자와 刊記를 확인할 수 있는 저서일 경우에는 위의 원칙 중 상당 부분이 활용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저자와 간기를 알 수 없는 작품들, 이를테면 無記名의 필사본 古典小說 같은 경우는 참으로 선본 선정이 어려울 때가 많다. 더욱이 異本이 많은 대부분의 고전 소설은 개개 이본이 일정하게 독자적인 작품가치와 의미를 확보하고 있다. <춘향전>의 경우, 이본에 따라 '성춘향'도 있고 '김춘향'도 있으며, 춘향의 신분도 賤人인 현직 기생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와 代婢贖身을 한 여염집 규수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본에 따른 각자의 의미망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100여 종이 넘는 춘향전 이본 중에서 最善本을 가려 내는 일은 매우 어렵다. 이런 경우는 작품 외적인 사회문화사적 환경과 작품을 조응시키면서 매우 심도 있는 천착을 거쳐야 비로소 작품 異本群 중에서 최선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3. 국학 자료의 전산화 작업

국학자료의 전산화 작업에는 지금까지도 많은 학자와 공공기관이 노력을 기울이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汗牛充棟으로 산적되어 있는 자료에 비하여 그 성과가 너무 미미할 뿐 아니라, 각 기관 또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이루어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입력된 자료조차도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⁵⁾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월에 서울시스템투식회사의 한국데이터베이스 연구소에서는 민족문화추진회와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 의해 국문으로 완역된 『국역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를 CD-ROM 판으로 간행한 바 있다. 회사측에 의하면,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의 모든 기사를 날짜별 및 분류별 색인을 통해 탐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문 속의 모든 한글 漢字 단어에 대한 조건 검색 기능도 부여되어 있다고 한다.⁶⁾ 참으로 엄청난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이라는 흡사 박제품이 된 공룡과도 같은, 거대한 조선시대 문화의 잔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다 하겠다.

민족문화추진회와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수십 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비록 『조선왕조실록』의 국문번역이 완성되기는 하였으나 도합 413권에 이르는 방대한 문헌 속에서 연구자가 특정 내용의 자료를 찾아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실록에서는 사건 내용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의 전말을 완전히 판독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왕조에 걸쳐 수십 년치의 자료를 뒤져야 하는

5) 한국학 자료의 전산화 현황에 관하여는 허성도, 「한국학 자료 전산화의 현황과 과제」,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제6회 학술토론회 발표요지, <한국학의 문헌학적 연구 그 현황과 과제>, 1994.11.11)에 일목요연하게 소개해 놓고 있다. 그 내용을 별표 <2>에 인용해 둔다.

6) 金炫, 「『韓國古典籍의 電算化의 成果와 課題-『조선왕조실록 CD-ROM』 개발 사업 경과와 발전방향-」, (韓國古典籍整理事業의 成果와 課題, 민족문화추진회, 1995), p.67.

경우도 없지 않다. 따라서 극소수의 전문 연구자들만이 각자의 전공 및 관심 테마에 따라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 자료 카드를 작성·정리하고 활용하는 비능률성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 『조선 왕조실록』 활용의 실태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국역 왕조실록 CD-ROM』의 보급이 보여 줄 국학연구에의 기여도가 얼마나 클 것인가를 예상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 강조할 사실은 비단 『왕조실록』만이 아니라 모든 국학 관계 자료가 치밀한 계획 아래 체계적으로 전산화되고 CD-ROM으로 보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작업은 개인 단위나 대학이나 연구소 같은 단위 기관 또는 특정한 개별 회사 단위로는 결코 성취할 수 없는 엄청난 사업이고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의 다각적인 지원이 요망된다.

첫째, 자료의 종합 관리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기구 설치

둘째, 자료의 전산화, 정보화가 가능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확보

셋째, 지속적이고 충분한 재정 지원

등이 정부 차원에서 담당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 아닌가 한다. 또 국학 자료 전산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이미 『국역 조선왕조실록』의 CD-ROM 개발 과정에서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서울시스템(주)의 金炫 상무의 다음과 같은 조언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제대로 된 고전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전 연구자들을 위시해서 고도의 기술력을 지닌 정보 기술 인력과 훈련된 자료 가공요원을 포함하는 조직을 구성하여 명확한 목표 하에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한다.⁷⁾

7) 金炫, 上揭論文, p.87.

4. 漢文典籍의 주석 및 국역 사업

앞서 거론한 1, 2의 사업들은 궁극적으로는 漢文典籍의 국역사업이나 국문 고전의 현대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비단계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즉 古典籍의 국역 또는 現代化 사업은 도서목록집의 간행, 定本 및 善本 변별을 위한 本文 내용의 교감과 해제 등의 과정을 거쳐 텍스트의 확실성이 확보된 후에 추진되어야 순리적인 良質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이러한 예비작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현 수준에서는 부득이 이러한 예비작업까지 동시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漢文典籍의 주석 및 국역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은 60년대 후반에 國譯專門機關인 民族文化推進會가 설립되어 고전국역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朝鮮王朝實錄』, 『大東野乘』 등을 비롯한 민족고전의 국역에 착수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그 후 ‘고전국역사업 추진계획’(1977년)과 ‘고전국역사업 활성화방안’(1985년)에 의하여 실질적인 민족고전 국역사업이 민족문화추진회를 주축으로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등 몇몇 단체에 의하여 수행되어 왔고, 그 결과 1968년에 『세종실록』의 국역으로 시작된 『조선왕조실록』의 국역사업이 1993년에 완료됨으로써 국역사업의 거대한 기념비를 세우기에 이르렀다.⁸⁾

그 동안 漢文古典國譯事業에 관여한 기관 및 단체는 辛承云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별표 <3>과 같고,⁹⁾ 이들에 의하여 이룩된 국내 고전국역의 연도별 실적표는 별표 <4>와 같다.¹⁰⁾

별표 <3>·<4>를 통해 볼 때, 漢文 古典籍의 국역사업은 국가의 정책적 지원 아래 ‘민족문화추진회’를 필두로 7개 국역기관 및 단체가 설립되어 도합

8) 李佑成, 「한국 漢文古典 國譯事業에 대한 回顧와 展望」(민족문화추진회, 前掲書, 1995), pp.1-2. 참조.

9) 辛承云, 韓國 古典籍 現代化의 成果와 課題(上掲書), p.12에서 옮김.

10) 上掲書, p.15에서 옮김.

831책의 성과물을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적은 古典籍遺産 총량에 비한다면 참으로 氷山一角의 수준을 넘지 못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그만큼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이 많음을 짐작케 한다. 국역사업 추진상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辛承云 교수의 제안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古典籍 정리를 위한 古典籍의 調査·目錄·蒐集·解題 등 기초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 (2) 국역대상 전적의 校勘·標點·索引 등 原典整理事業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 (3) 국역을 위시한 모든 古典整理要員은 모두 常任化되어야 한다.
- (4) 專門人力 양성과 양성된 요원의 수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5) 國譯을 위시한 古典籍 정리사업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절실하다.
- (6) 古典籍 정리를 담당할 기관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육성이 요구된다.¹¹⁾

5. 국문 古典籍의 현대역 작업

흔히 우리의 통념으로는 古典籍이라면 의례껏 漢文典籍만을 그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굳어 있다. 일례로, 지난 11월 3일에 거행된 '민족문화추진회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도, 발표된 5편의 논문 중에서 金宗吉 교수의 <韓國古典籍의 世界化의 方向>을 제외한 네 편의 논문이 한결같이 漢文典籍의 國譯事業에 관한 것이었고, 金宗吉 교수의 논문에서도 외국에 소개된 우리 고전적의 품목을 거론하면서 <춘향전>·<심청전>·<조웅전>·<홍길동전>·<장국진전>·<배비장전>·<변강쇠전>·<九雲夢>·<謝氏南征記> 등의 작품명을 인용했을 뿐이어서 국문 고전의 현대화작업과는 별반 관련이 없었다.¹²⁾

11) 上揭書, pp.27-33, passim.

12) 上揭書.

그러나, 우리 고전 중에서 문학 작품, 특히 소설의 대부분은 국문 필사본인데, 長篇大河物이 수십 종 포함되어 있는 이들 소설 작품만 해도 『조선왕조실록』 정도의 분량은 될 터이고, 그 밖에도 民譚·野談·書簡文·紀行文 등과 같은 일반 산문과 시조·가사·내방가사·민요·판소리·서사무가·서사민요 등과 같은 시가와 구비문학 자료, 언해본이 주자료가 되는 국어학 자료등을 합치면 그 분량 또한 방대한 것이고 이들 작품군이 한결 같이 자료의 현대화 작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문 고전이 한문 전적에 밀려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온 것은 국학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이 시점에서 생각할 때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몇몇 대학 연구소, 출판사, 정신문화연구원 등에서 단편적인 현대화 작업이 이루어져 오기는 했지만 그 성과는 미미한 것이었다. 다행히 수년전부터 서울 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1차 5개년 계획으로 해마다 규장각 소장본 장편소설 2종과 국어학 자료 1권씩을 현대화하게 되었다.¹³⁾ 여기서 이 작업 내용을 국문 고전 현대화 사업의 한 사례로 소개해 보면 <별표 5>와 같다.

6. 결론(문헌학적 기초 연구를 위한 진흥 방안)

지금까지 필자는 21세기의 세계화 및 민족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국문학 또는 국학의 연구 목표와 방향을 주로 문헌학적 기초 연구로 돌리자는 제안을 하였다. 물론 통일을 대비하고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13) 예컨대, <정신문화연구소>에서는 1980년부터 2~3년간에 걸쳐 <明珠寶月聘(李相澤解題)>, <尹河鄭三門聚錄>, <嚴氏孝門清行錄>, <華山仙界錄> 등 수편의 古典大河小說을 校註, 刊行한 바 있고, 金鎮世 교수는 한국 最長의 大河小說 <玩月會盟裏>을 1987년부터 8년에 걸친 교주작업 끝에 서울대출판부에서 刊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작업은 原典의 校註作業에 그쳤을 뿐이어서, 現代化 작업이 추후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 근자에 와서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고전 각 장르를 망라하는 『한국고전문학전집』 200책을 목표로 하고 1993년 현재 10권의 주석 및 현대역 작품집을 간행한 바 있다.

첨예한 이론 개발이 불필요하다거나 그것을 중단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이러한 작업은 연구자들에게 그 자체로써 충분한 매력을 느끼게 하고, 또 동기부여를 하기 때문에 외부적인 특별한 배려가 없어도 지속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국학의 세계화와 민족통일지향적인 연구를 추구할 때 정작 필요 불가결하면서도 화려한 조명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좀처럼 연구 동기를 느낄 수 없어서 침체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영역이 문헌학적 기초 연구이기 때문에 학문 풍토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일으키고 적극적인 진흥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본 논문의 취지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에 따라 진흥 방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양성된 전문 인력의 사회적·경제적 신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문헌학의 학문적 전문성을 고려할 때, 작업을 담당할 전문 요원은 常任化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대학교수 기타 전문가에게 副業형식의 청부 위촉에 의해 작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책임감이나 유기적 연대 체제가 결여되어 있어서 부작용이 크고 비능률적이었다.

셋째, 치밀한 연차적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사업의 장기적 계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일회적 또는 限時적 사업 계획이 아닌 사업의 총체적 완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마스타플랜을 수립하고 그 조감도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문헌학적 기초 연구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사회 통념상, 행정제도상의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인센티브로서는 주석·번역 또는 교감 작업의 성과물에 대하여 일반 이론논문과 동일한 연구 업적 평가제의 도입을 생각할 수 있다.

다섯째, 문헌학적 연구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에서의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 별표 1: 국학자료관계 도서목록집

- 『李王家藏書閣古圖書目錄』(李王職, 1935년)
- 『今西博士蒐集朝鮮關係文獻目錄』(일본 天理大 おやさと연구소, 1957)
- 『東洋文庫朝鮮本分類目錄』(동양문고, 1939년. 1976년 중보)
- 『高麗大藏經(海印寺藏)目錄』(진단학회, 1964년. 『韓國史』 「中世篇」의 부록)
-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1965년. 1980년 補訂版)
- 『韓國古書綜合目錄』(국회도서관, 1968년. 윤병태 편)
- 『Kodae Sosöl: A Survey of Korean Traditional Style Popular Novels』
(A.E. Skillend, University of London, 1968)
- 『李朝書院文庫目錄』(국회도서관, 1969년. 李春熙 편)
- 『古書目錄』(국립도서관, 1970·1971·1972·1973·1980)
-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문화재관리국, 1972년)
- 『一般古圖書目錄』(서울대도서관, 1973년).
- 『薪菴文庫漢籍目錄』(고려대 중앙도서관, 1974년)
- 『山氣文庫目錄』·『尙熊文庫目錄』·『玩樹文庫目錄』(李炳麒씨 소장본목록)
·『誠巖文庫目錄』(국학자료보존회, 1974년)
- 『誠庵文庫目錄』·『仁壽文庫目錄』(국학자료보존회, 1975)
- 『景和堂文庫目錄』(고려대 중앙도서관, 1975)
- 『華山文庫漢籍目錄』(고려대 중앙도서관, 1976)
- 『韓國佛教撰述文獻總錄』(東國大學校 佛教文化研究所, 1976)
- 『古書目錄』(연세대 중앙도서관, 1977년)
- 『韓籍目錄』(해군사관학교 도서관, 1977년)
- 『晚松金完燮文庫目錄』(고려대 중앙도서관, 1979)
- 『古書目錄』(성균관대 중앙도서관, 1979·1981)
- 『貴重圖書目錄』(고려대 중앙도서관, 1980)
-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 2책(서울대 도서관, 1981)
- 『古書目錄』(이화여대, 1981)
- 『古書目錄』(동국대 중앙도서관, 1981)
- 『古書目錄』(국사편찬위원회, 1983)

- 『海外韓國關係資料目錄』(국립중앙도서관, 1983)
- 『韓國古小說目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 『漢籍目錄』(고려대 중앙도서관, 1984)
- 『日本所在韓國逸書研究』(沈堦俊, 일지사 1985).
- 『韓國典籍綜合調查目錄』 6책(문화재관리국, 1986 · 1988 · 1989 · 1990 · 1991).
- 『古書目錄』(李相殷 編, 1986)
- 『古書目錄』(계명대 중앙도서관, 1987)
- 『古書目錄』(전남대 도서관, 1990)
- 『藏書目錄』(국사편찬위원회, 1990).
- 『羅孫文庫目錄』(단국대 을곡기념도서관, 1991)

♣ 별표 2 : 한국학 자료의 전산화 현황

世紀別 國語用例辭典 編纂을 위한 入力 資料 目錄

	年度	文 獻 名
1	1445	龍飛御天歌(國文歌詞)
2	?	訓民正音 諺解本
3	1447	釋譜詳節(권3,6,9,11,13, 19, 20, 21, 23, 24)
4	1447	月印千江之曲(上)
5	1459	月印釋譜(卷1,2,7,8,9,10,11,12,13,14,17,18,21,22,23)
6	1461	楞嚴經諺解(卷1-10)
7	1464	金剛經諺解
8	1464	禪宗永嘉集諺解(初刊本 上下)
9	1464	阿彌陀經諺解
10	1475	內訓(卷1, 2, 3)
11	1481	初刊杜詩諺解(卷9)
12	1485	觀音經諺解
13	1489	救急簡易方諺解(卷1, 2)
14	1496	六祖法寶壇經諺解(中)
15	16C	翻譯老乞大(上, 下)
16	1517	翻譯小學(卷6, 7, 8, 9, 10)
17	1518	呂氏鄉約諺解(尊經閣本)
18	1518	正俗諺解(李源周 教授本)
19	1518	二倫行實圖(玉山書院本)
20	1527	訓蒙字會(初刊本)
21	1541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
22	1569	七大萬法
23	1577	發心修行章(松廣寺版)
24	1577	誠初心學人文(松廣寺版)
25	1579	警民編諺解(東京教育大本)
26	1583	千字文(叡山本)
27	1584	救荒撮要(萬曆本 筆寫本)
28	1586	小學諺解(陶山書院本)

	年度	文 獻 名
29	1586	中庸諺解(陶山書院本)
30	17C 초	女訓諺解
31	1608	諺解痘瘡集要(卷上, 下)
32	1608	諺解胎產集要
33	1612	練兵指南
34	1613	東醫寶鑑(湯液篇의 한글부분)
35	1617	東國新續三綱行實圖
36	1632	家禮諺解
37	1632	重刊杜詩諺解(卷1-25)
38	1635	新傳煮取焰焰方諺解
39	1635	火砲式諺解
40	1637	勸念要錄
41	1653	辟瘟新方
42	1657	語錄解(鄭澆의 初刊本)
43	1658	醫民編諺解(奎章閣本)
44	1660?	新刊救荒撮要(尹錫昌 教授本)
45	1661	千字文(七長寺版)
46	1664	類合(七長寺版)
47	1670	老乞大諺解
48	1676	捷解新語(初刊本)
49	1677	朴通事諺解
50	1682	馬經抄集諺解
51	1686?	新刊救荒撮要(가람문고본)
52	1690	譯語類解(上, 下)
53	1698	新傳煮硝方諺解
54	18c	倭語類解
55	1703	三譯總解
56	1715	譯語類解(補)
57	1721	伍倫全備諺解(권1-8)

	年度	文 獻 名
59	1737	御製內訓諺解
60	1741	蒙語老乞大
61	1742	童蒙先習諺解
62	1745	御製常訓諺解
63	1746	御製自省篇諺解
64	1748	改修捷解新語(初刊本)
65	1749	大學栗谷先生諺解
66	1749	中庸栗谷先生諺解
67	1749	論語栗谷先生諺解
68	1752	地藏經諺解
69	1756	闡義昭鑑諺解(卷首, 권1-4)
70	1758	種德新編諺解
71	1761	御製警世問答諺解
72	1762	御製警民音
73	1763	御製警世問答續錄諺解
74	1764	御製祖訓諺解
75	1765	朴通事新釋諺解
76	1765	御製百行頌
77	1768	蒙語類解(上, 下)
78	1772	十九史略諺解
79	1777	明義錄諺解(卷首上, 卷首下, 권1, 2)
80	1777	八歲兒
81	1777	小兒論
82	1778	方言集釋
83	1778	續明義錄諺解
84	1781	御製濟州大靖靜義等邑父老民人書
85	1781	捷解新語(重刊本)
86	1782	諭京畿大小民人等綸音
87	1782	諭中外大小臣庶綸音

	年度	文獻名
88	1782	諭湖西大小民人等繪音
89	1783	御製諭原春道嶺東嶺西大小士民繪音
90	1783	諭京畿民人繪音
91	1783	諭京畿洪忠道監司守令等繪音
92	1783	諭京畿洪忠全羅慶尙原春六道繪音
93	1783	諭慶尙道觀察使及賑邑守令繪音
94	1783	諭慶尙道都事兼督運御使金載人書
95	1783	諭咸鏡道南北關大小士民繪音
96	1783	諭湖南民人等繪音
97	1783	字恤典則
98	1784	御製賜畿湖別賑資繪音
99	1784	曉諭繪音
100	1784	御製王世子冊禮後各道臣軍布折半蕩減繪音
101	1785	御製諭濟州民人繪音
102	1787	兵學指南(壯勇營版)
103	1788	御製諭咸鏡南北關大小民人等繪音
104	1788	加髻申禁事目
105	1790	隣語大方
106	1790	武藝圖譜通志諺解
107	1790	捷解蒙語
108	1792	御製諭楊州抱川父老民人等書
109	1792	增修無冤錄諺解
110	1793	諭濟州大靜旌義等邑父老民人書
111	1794	諭諸道道臣繪音
112	1794	湖南六邑民人等繪音
113	1795	御製養老務農頒行小學五倫行實饗儀式鄉約條例繪音
114	1795	重刊老乞大諺解
115	1796	敬信錄諺釋
116	1796	奠說因果曲

	年度	文 獻 名
117	1797	五倫行實圖
118	1839	諭中外大小民人等斥邪繪音
119	1852	太上感應篇圖說諺解
120	1865	金氏世孝圖
121	1869	閩閩叢書
122	1875	易言諺解
123	1876	南宮桂籍
124	1880	過化存神
125	1880	三聖訓經
126	1881	御製諭大小臣僚及中外民人斥邪繪音
127	1881	竈君靈蹟誌
128	1882	敬惜字紙文
129	1882	御製諭八道四都耆老人民等繪音
130	1883	明聖經諺解
131	1884	關聖帝君五倫經諺解
132	1886	蠶桑輯要

檀國大學校 人文科學大學 國語情報處理研究會 入力資料

	文 獻 名
1	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3개異本)
2	魏譯朴通事(上)
3	百聯抄解(東京外國語大本)
4	百聯抄解(洪允杓所藏本)
5	女小學諺解
6	곽씨전(羅孫本)
7	곽씨전(박순호본)
8	九雲夢
9	던운치전(羅孫本)
10	두홍전(羅孫本)
11	龜主簿曲(洪允杓所藏本)
12	숙영낭자전
13	양반전
14	옥단춘전
15	이춘풍전
16	접동전(羅孫本)
17	춘향전(完板本)
18	토생전(羅孫本)
19	호심전(羅孫本)

學會 및 個人 入力資料

文 獻 名	入 力 者
杜詩諺解(初刊本)	한국어전산학회
三國史記	한국사사료연구소
高麗史	한국사사료연구소
太祖實錄	한국사사료연구소
定宗實錄	한국사사료연구소
太宗實錄	한국사사료연구소
世宗實錄	서울시스템
文宗實錄	한국사사료연구소
端宗實錄	한국사사료연구소
世祖實錄	한국사사료연구소
조선왕조실록국역본	서울시스템
文科榜目	이성무(정신문화연구원)
司馬榜目	이성무(정신문화연구원)
雜科榜目	이성무(정신문화연구원)
物名括	홍윤표(단국대)
速修漢文訓蒙	홍윤표(단국대)
初學要選	홍윤표(단국대)
漢字用法(홍윤표)	홍윤표(단국대)
古典詩歌	권두환(서울대)
新增類合(初刊本)	손희하(전남대)
로한즈던(푸질로)	곽충구(동덕여대)
法華經諺解	소강춘(전주대)
交隣須知(4 가지 異本全體)	편무진(단국대)
全北地方 古文書	송준호(원광대)
15c-19c 國語史資料(目錄未詳)	한영균(울산대)

기타 국학관계 입력자료

1. 國立國語研究院 : 綜合國語大辭典 編纂用
2. 延世大學校 : 國語辭典 編纂用
3. 高麗大學校 : 國語辭典 編纂用
4. 國立中央圖書館 : ‘한국문헌목록정보’(國立中央圖書館 소장 1945년 이후의 단행본과 박사학위 논문. 國立中央圖書館 입력. 서울시스템제작)

이 이외에도 각 출판사에서 출판을 위하여 전산화된 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은 대부분 사장되어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자료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별표 3 : 국내 국역기관 및 단체

	민족문화추진회	세종기념사업회	정신문화연구원	국방군사연구소	퇴계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법제처	계
기본 성격	*민간재단 법인 *고전의 국역·편찬 및 역요원 양성 *고전읽기 운동	*민간사단 법인 *세종대왕 기념사업	*특별법인 *한국학 연구	*특별법인 *전시 및 군사의 연구	*사단법인 *퇴계사상의 연구와 선양	*국가기관 *사료의 수집·정리·편찬	*국가기관 *법제의 연구	
설립 및 국역 착수	설립:1965 국역:1966 양성:1974 편찬:1986	설립:1957 국역:1968	설립:1978 국역:1984	국역:1983	국역:1989	설립:1949 국역:1989 편찬:1955	국역:1962	

♣ 별표 4 : 국내 고전 국역 연도별 실적표 (1966-1994)

연도	실록· 승정원 일기	일반 전적	소계	기타	계	비 고
1966	-	2	2	1	3	민추국역착수, 법제처(1962)
1967	-	9	9	1	10	
1968	2	18	20	-	20	세기사 국역착수
1969	4	11	15	1	16	
1970	4	6	10	1	11	
1971	7	10	17	1	18	
1972	6(1)	4	11	1	12	
1973	6	2	8	1	9	
1974	7	10	17	3	20	민추국역연수원개원
1975	5(1)	10	16	2	18	
1976	5(2)	10	17	3	20	
1977	14	29	43	3	46	고전국역촉진계획
1978	11	22	33	3	35	정문연개원
1979	10	23	33	2	35	
1980	11	19	30	1	31	
1981	11	19	30	2	32	
1982	12(1)	12	15	3	28	
1983	8	7	15	2	17	
1984	9(1)	4	14	3	17	전편(국방군사연구소)국역착수
1985	24	4	28	15	43	정문연국역착수
1986	21	6	27	4	31	고전국역사업활성화방안, 한국문집총간편찬착수
1987	33(1)	1	35	3	38	
1988	30	5	35	5	40	
1989	29(3)	3	35	9	44	
1990	30	5	35	10	45	국편, 퇴제학연구원국역착수
1991	31	6	37	8	45	
1992	35(2)	1	38	7	45	
1993	48	-	48	6	54	조선왕조실록완역
1994	21(11)	18	50	8	58	승정원일기국역착수
계	434(색 인24책 제외)	276	733	98	831	실록과 일반고전은 민추와 세기사의 실적이 며 기타는 두 기관을 제외한 단체와 기관에 서 발간한 것임(국고 보조금에 한함)

♣ 별표 5:

〈고전소설 역주·연구사업〉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5개년 계획)

— 규장각본 장편 대하 소설의 현대어역 및 주석, 해제 사업

1. '94년도 역주사업 대상 작품

소현성록 21책 (원고지 4000매 분량)	}	연구 책임자 : 이상택
옥루몽 14책 (원고지 6000매 분량)		연구인원 : 12명
		성과물의 예상책수 : 6권

2. 사업 내용 및 방법

- ① 원문을 판독하여 원문대로 전산 입력하고 이를 전사한다.
- ② 현대어역을 하고 현대 표기법(띄어쓰기 및 철자법)에 의하여 표기한다.
- ③ 의미 파악에 필요한 경우에 한자주를 괄호 안에 병기하고, 난해한 어구는 하단에 주석을 붙인다.
 - 이상 ① ② ③의 작업을 6명이 분담하여 진행한다.
- ④ 판독, 전사, 주석 작업이 완료된 원고를 원문과 대조하여, 판독 전사, 주석의 오류를 교정하고 운문작업을 한다.
 - ④의 작업을 4명이 분담하여 진행한다.
- ⑤ 작품마다 권두에 작품의 총체 구조에 관한 해제 논문을 수록한다.
 - 소현성록과 옥루몽의 작품구조에 대해 각각 1명이 연구·집필한다.

3. 작업상의 작업진행 세칙

1) 판독 및 전산입력

- ① 구두점 : 마침표, 따옴표, 물음표는 사용되며, 쉼표는 하지 않는다.

(섬표는 교열 및 교주 과정에서 한다. 현대어역에는 어법과 호흡에 맞게 섬표를 붙인다.)

- ② 띄어쓰기 : ‘다르니’, ‘홀이’처럼 연결되는 말은 중세국어문법에 따라 붙여쓴다.
- ③ 글자의 순서가 잘못되어 필사자 자신이 수정한 경우는 그 수정에 따른다. 그러나 수정표시는 옮기지 않는다.
- ④ 필사자의 수정이 없는 오기(誤記)는 주석에서 오기표시를 한다.
- ⑤ 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경우 판독입력은 원문대로 한다.
- ⑥ 문장이 빠졌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이본대조를 통해서 정본구성에 노력한다.(이본대비에 대한 내용을 주석으로 단다.)
- ⑦ ‘차설, 화설, 각설’ 등의 용어는 고딕화 한다.
- ⑧ ‘우왈’, ‘대왈’처럼 2자의 경우는 붙여쓰고 ‘우문 왈’처럼 3자 이상의 경우는 띄어쓴다.
- ⑨ 전산입력한 원고가 교열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교주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세심한 판독이 요구됨.

2) 주석

- ① 전산입력-교열-주석-현대어역의 연구체제에서는 주석을 총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 따라서 앞으로 전산입력-교주-현대어역-교열의 연구체제를 갖춘다. 필요에 따라 교열이 끝난 뒤에 총평회를 갖는다.
- ② 주석은 처음에는 자세히 달고 뒤에 반복되는 것은 생략한다.
- ③ 현대어역에 들어갈 한자어까지 주석에서 처리한다.
- ④ 현재 사용되지 않는 고어는 주석에서 처리한다.
- ⑤ 문장이 빠졌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본대조를 통해서 정본구성에 노력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주석으로 처리한다.
- ⑥ 필사자의 수정이 없는 오기(誤記)는 주석에서 오기표시를 한다.
- ⑦ 같은 문장이 반복된 경우, 이 사실을 주석으로 밝힌다.

3) 현대어역

- ① 주에서 풀이한 것은 따로 풀이하지 않는다. 한자어는 문맥상 이해에 필요한 경우에 노출시킨다.
- ② 현재 사용되지 않는 고어는 현대어로 고친다.
- ③ 독자는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④ 주격조사 '-이'는 '-가'로 고친다. 그러나 어미나 조사는 가능한 한 원문대로 옮겨 원문의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살린다.
- ⑤ 어법과 호흡에 맞게 쉼표를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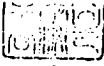

4) 해제작업

- ① 기존연구를 종합하고 이본관계와 자료의 특성에 대해 연구한다.

4. 작업 과정 예시

1) 작업 대상 작품의 원문 실례

주해이시사디...
 스키...
 구...
 ...
 ...

주해이시사디...
 스키...
 구...
 ...
 ...

2) 작업내용의 실례

① 원문 판독 전산 입력 및 전사

화설 변경¹⁾ 남문밖 스십니의 혼 피히 이시니, 호왈 즈운산²⁾이요, 쥬회 삼뵈니니 산형이 팔장³⁾ 쏘진 듯하고, 폭피 전후로 나는 곳이 칠십여쳐라. 잔완⁴⁾한 물이 모혀 큰 못시 되여시니, 쥬회 삼십여리오 깊히 일천척이니, 굴은 완룡담⁵⁾이라. 못과 산이 남북으로 돌녓고, 그 ㄱ온더 혼 끝이 이시니, 굴은 장현동이라. 쥬회 일뵈니오 평탄하기 유리를 밀친 듯하더라. 즈운산 스면의 창송녹죽이 스시로 봄빛출 띄여시니, 심슈⁶⁾하고 화려하며 봉만이 열들이니, 텃디 초판⁷⁾홀 계, 뭉근 경기와 신이혼 기운이 오로지 완룡담과 즈운산의 잠겨 슈출⁸⁾하미라. 그 끝 속의 혼 처사이시니, 성은 소오 명은 담이라. 교목세가⁹⁾오 팔뵈년 구족이러라. 그 조상이 한당 이더를 섬겨 더 더로 명문지상이러니, 오계¹⁰⁾적 텃히 대란하니 소담이 시절을 피하여 이곳의 은거하니, 부인 양시는 참정 양문광의 장녀라.

츠시, 문덕황제 덕정이 ㄱ작하샤 만민이 행복하디, 처시 맞출너 나지 아니니, 승상 묘보와 석슈신 등이 텃즈기 천거하니, 태죄 안거스마¹¹⁾로 부르시니, 처시 스명¹²⁾을 더하여 왓,

“당여 지성이시니 소혜¹³⁾이시니, 이제 생상의 은택이 브족하미 아니라, 내 스스로 뜻이 나낙하여 환육의 뜻이 업스니, 황상이 구타여 꺾박하면 죽어 뜻을 직회리라.”

스관이 이더로 회쥬¹⁴⁾하니, 텃지 츄탄하시고 그 뜻을 앗지 못하샤, 호를 소초뵈라 하여 그 정개하물 표하시니라.

② 주석작업

- 1) 변경: 변경(汴京). 중국 하남성(河南省) 개봉현(開封縣)의 옛 이름. 후량(後梁) 및 북송(北宋)의 도읍이었음.
- 2) 즈운산: 자운산(紫雲山). 중국 하남성에 있는 산.
- 3) 팔장: 八障. 여덟 폭 병풍.

- 4) 잔완: 잔원(潺湲)의 오기. 졸졸 흐르는 물.
- 5) 완룡담: 와룡담(臥龍潭).
- 6) 심슈: 深澗. 깊고 그윽함.
- 7) 텃디 초판: 천지 초판(天地 初判). 천지가 처음으로 열림.
- 8) 슈출: 수출(秀出). 다른 것보다 빼어남.
- 9) 교목세가: 교목세가(喬木世家). 여러 대에 걸쳐 중요한 벼슬을 지내 그 나라와 운명을 같이하는 집안.
- 10) 오계: 五季. 당나라와 송나라 사이의 시대. 이른바 5대(代) 10국(國)이 부침(浮沈)하던 때임.
- 11) 안거사마: 안거사마(安車駟馬). 안거(安車)는 노인이나 부녀가 타는 편 안한 수레. 사마(駟馬)는 네 마리의 말이 수레를 끄는 것. 합하여 임금 이 극진한 예(禮)로 선비를 부르는 것을 일컫는 말.
- 12) 스명: 辭命. 임금의 분부.
- 13) 소해: 소허(巢許) | 소부(巢父)와 허유(許由)가. 소부와 허유는 요 임금 때의 고사(高士).
- 14) 회주: 회주(回奏). 돌아와 아뢰.

③ 현대어역 및 한자주

화설, 변경 남문 밖 사십 리에 한 산이 있으니 호왈 자운산이요, 주위가 삼백 리니 산형(山形)이 팔장을 쫓은 듯하고 폭포가 전후로 나는 곳이 칠십여 처라. 잔원한 물이 모여 큰 못이 되었으니 주위가 삼십여 리요 깊이 일천 척이니 가로되 와룡담이라. 못과 산이 남북으로 들렸고, 그 가운데 한 골이 있으니 가로되 장현동(藏賢洞)이라. 주위가 일백 리요 평탄하기 유리를 밀친 듯하더라. 자운산 사면에 창송녹죽이 사시로 봄빛을 띠었으니 심수하고 화려하며 봉만(峯巒)이 열 둘이니, 천지 초판할 때 맑은 정기와 신이한 기운이 오로지 와룡담과 자운산에 잠겨 수출함이라. 그 골 속에 한 처사가 있으니 성은 소요, 명은 담이라. 교목세가요 팔백년 구족(舊族)이더라. 그 조상이 한당(漢唐) 이대(二代)를 섬겨 대대로 명문재상이더니, 오계 적 천하가 대란(大亂)하니 소담이 시절을 피하여 이 곳에 은거하니 부

인 양씨는 참정 양문광의 장녀라.

차시, 문덕황제 덕정(德政)이 성대하시어 만민이 행복하되 처사가 마침내 나지 않으니 승상 조보와 석수신 등이 천자에게 천거하니, 태조(太祖)가 안거사마로 부르시니 처사가 사명을 대하여 왈,

“당요(唐堯)가 지성(至誠)이시나 소부와 허유가 있으니 이제 성상(聖上)의 은택(恩澤)이 부족함이 아니라 내 스스로 뜻이 낙락(落落)하여 환욕(宦慾)에 뜻이 없으니 황상이 구태여 꺾박하면 죽어 뜻을 지키리라.”

사관(辭官)이 이대로 회주하니 천자가 차탄하시고 그 뜻을 앗지 못하시어 호를 소초부라 하여 그 정개(淨介)함을 표하시니라.

④ 원문 대조 후 교열 및 윤문

생략

⑤ 작품의 총체구조에 관한 연구논문

권두에 작품의 총체구조에 관한 해제 논문을 붙인다.